

문화 · 생태 공동체를 꿈꾸는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태안대야도마을



앗! 늦었다. 아침9시부터 갯벌체험이 시작된다고 해서 맞춰놓은 알람소릴 못 들었다. 부리나케 준비하고 떠난 곳은 바로 충남 태안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취재용 사진을 직접 찍고 싶어서 일부러 체험활동이 있는 날로 인터뷰를 잡아버린 것이다.

마침 도착했을 때 청주에서 온 갯벌체험객 40여명이 호미와 장화 등 준비물을 한창 챙기고 있었다.

갯벌체험중인 단체방문객



갯벌체험을 위해 모여있는 단체방문객

또 대구에서 이곳을 찾아왔다는 관광객 가족은 휴가철을 맞아 일부러 서해갯벌체험을 하러 왔다고. 알고 보니 우리 지역에서는 갯벌이 그나마 많아서 이런 바지락캐기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찾는단다. 필자도 그제서야 우리 서해갯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새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마을 이태영 사무장은 “우리 마을은 전국에서 많은 체험객이 찾아주시는데, 휴가철에는 유독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를 비롯한 타지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충남교육청이 우리 마을을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인증해 주었는데, 정작 충남 지역 학생들은 오지 않는다”며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1970년대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지만, 대야도 마을은 원래 섬이었다고 한다. 섬에 이끼 같은 푸른 해초가 많아 이끼와 발음이 비슷한 ‘잇기 약’을 빌려와서 썼다는 것이다. 섬 이름대로 오랜 특산물인 김이었다. 30년대에는 일제가 수산시험소를 대야도에 세워 김 양식 기술을 연구하기도 했

다는데, 지금은 천수만 방조제 A-B지구 건설로 김 양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어업 형태를 바지락 및 굴 등 갯벌어업으로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구상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이 마을 정재봉(46세) 대표가 있다. 이곳이 고향이지만 이른 나이에 귀농해 축산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 이장을 겸하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날 직접 얼굴도 못



대야도마을에서 만난 이태영 사무장



대야도 마을 모습



봐서 아쉽긴 했다. 사실 처음 마을체험마을을 제안한 건 이 마을에 귀농한 분이 제안했었다고 한다.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은 많이 자리가 잡혀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큰 행운이 아닐까 한다.

갯벌체험을 하려면 이 마을에서 운영중인 전기자동차를 타고 이동해 갯벌로 내려갈 수 있다. 비록 무덥고 습한 날씨에 땀도 많이 났지만 바지락을 하나라도 더 캐기 위한 호미질이 한창이다. 체험객들과 함께 이 마을 할머니들도 몇 분이 나오셔서 함께 바지락을 캐고 계셨는데, 혹시라도 바지락을 못 캐기는 체험객들을 위해 따로 마

련한다는 것이다.

어촌체험은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현장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잡아온 조개 등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밥상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 총75가구 138명의 주민 이외 외국인 근로자가 3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귀농귀촌자를 포함하면 약 50%가 외지인(?)이라는 말이다. 이중 체험에 참여하는 가구수는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어촌계 32가구와 펜션, 민박업

15가구 등 약47가구가 있다.

이러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과 귀농귀촌자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이 마을에서 찾아 낸 방법은 바로 문화예술활동이었다.

서로 교류도 없다보니 만나면 서먹하고 무관심해지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에 마을 주민과 운영진들은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먼저 초대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서로가 모여 음악활동을 함께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다.

마침 이 마을엔 안중초등학교 대야분교가 폐교되자

지난 2002년도에 마을주민 스스로 자금을 모아 매입하여 재탄생시킨 마을학교가 있다. 지금은 마을주민들의 문화교실, 동아리활동장소, 마을축제, 체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함께 모여 만든 마을 밴드팀과 풍물팀 난타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한마을 한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추석 등 명절이 되면 마을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때마다 공연도 하고 노래자랑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대야도마을 갯벌체험 모습 - 체험장 이동-바지락 캐기-장화와 호미 등 씻기-바지락 씻어 체험객에게 나눠주기 순서로 진행됨





대야도마을 마을학교 모습

문화예술 공동체를 실천하는 대야도마을 주민과 이주노동자, 귀농귀촌자



자료 : 대야도마을 제공

이 사무장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은 모여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마을주민 중 김재형 선생님은 마을주민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풍물 자격증까지 취득했을 정도로 열정이 넘친다.”고 자랑하셨다.

인터뷰 도중 사무실에 들른 귀농7개월차 문영석 선생님은 귀농이나 귀어를 한다면 절대 성급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조언해주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의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살을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또 이 마을엔 천상병 시인 생가가 있다는 사실. 필자도 인터뷰를 끝내고 한번 둘러보긴 했는데 내부를 볼 수



대야도마을로 이전 복원한 천상병 시인 생가

는 없었지만 아주 소박하게 지어진 집이었다. 원래 이곳이 고향은 아닌데 의정부에 있었던 생가터가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디로 옮길까 고민하던 천상병 시인의 부인은 마침 아는 지인의 힘을 빌어 이곳 대야도마을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부인은 지금 이 마을에 살고 계심). 작품도 일부 전시되어 있고 최근에는 천상병 시인 추모 음악회도 가진 적이 있다고 한다. 요즘 인천시

에서 이 생가터를 옮기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태안군이나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또 이 마을은 앞에서 언급했던 체험마을로도 인기 만점이다. 그 중 최고는 갯벌체험이란다.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갯벌체험과 독살체험, 좌대·선상낚시, 귀촌인이 운영하시는 천연화장품만들기체험, 생태체험학습장(마을학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인근 안면도 휴양림과 패총박물관, 꽃지해수욕장 등이 가까워 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갯벌체험을 희망한다면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필자가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무턱대고 갯벌체험하고 싶다는 관광객이 5~6팀이 물때를 맞추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했다.

이 사무장은 “2010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012년 정보화마을 등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한 준비기간을 거쳐 지금의 대야도체험마을로 태어난거죠”하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예년보다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는 체험객이 많아져서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야도마을을 다녀간 체험객수는 약3만5천명, 체험과 관련한 직간접 매출은 모두 5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실 갯벌체험을 하면 아이들은 이 자연생태계를 보고 즐기지만 어른들은 입장료를 낸 만큼 잡아가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깊은 것도 사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온 어른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체험 시작 전에 항상 전해주었다고 한다.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어촌에 종사하시는 분



대야도마을의 다양한 생태체험학습 모습

자료: 대야도마을 제공

들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자연이 주는 선물에 고마움을 배워가길 바라는 맘뿐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체험마을의 미래이자 마을 사업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마을주민과의 갈등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딱히 해결방안도 찾기 어려울 때, 이 대야도마을은 모

든 사업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다고 한다. 마을주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한 일들인데 모두가 함께 발 벗고 나서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닌가 말이다.

이 사무장은 “아직은 준비 단계이지만 어촌6차산업으로 마을가공공장과 마을식당을 마을주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잘 추진하였으면 좋겠고, 내년도 창조적마을사업 선정에도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특색이 접목된 사업의 확장은 강력 추천할 만하다. 그렇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길 바라는 맘도 있다. 어찌거나 지금의 대야도마을은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마을의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특색의 확장형이길 바란다. 무엇보다 우리 바다 먹거리 생산과 청정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써 손색없는 섬 속의 섬, 해가 뜨는 서쪽 마을이길 기대해본다. ◀

